



〈양현종〉



〈윤석민〉

18일 광주 아오티 야구장에서 열린 '복병' 중국과의 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에서 KIA 마운드의 대표 양현종과 윤석민이 각각 선발과 중간계투로 나서 7-1 한국의 승리를 합작했다. /연합뉴스

허준녕·이성혜 금빛 발차기 태권도 금맥갈증 풀었다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만인니' 이성혜(26·삼성에스원)가 태권도 금빛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순천 출신의 허준녕(23·삼성에스원)도 남자 최중량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이성혜는 18일 광주 광동체육관에서 치러진 태권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허우위취(중국)를 우세승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17일 노골드에 그쳤던 태권도는 뒤늦게 금메달 사냥을 시작했다. 또 이성혜는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 이어 태권도 여자부 첫 2연패를 달성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2006년 도하 대회까지 한국 여자 태권도에서는 한 번도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부를 통틀어도 1994년 히로시마 대회와 1998년 방콕 대회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목에 건 '태권 영웅' 김재경만이 아시안게임에서 연달아 우승한 경향이 있다.

이어 열린 남자 87kg 이상급 결승전에서는 순천 출신의 허준녕이 정이(중국)를 11-4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2인자'의 실용을 날렸다.

허준녕이 금메달을 따낸 남자 최중량급은 가장 건강한 선수들이 출전해 '태권도의 꽃'으로 불리는 체급이다.

순천 연향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한 허준녕은 188cm, 94kg의 건장한 체구와 힘이 넘치고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이 돋보이는 선수다. 또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



〈허준녕〉

〈이성혜〉

는 능력과 돌러차기 기술이 뛰어나며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스텝 등 강점을 내세워 기대를 받았지만 같은 체급에 차동민과 남윤배 등 늘 쟁쟁한 경쟁자들에 밀려 그늘에 묻혀야 했다.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에 머물러 태극마크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로소 노력의 대가를 얻었다. 전국남녀우수대회 겸 국가대표예선대회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탄 허준녕은 내친김에 올해 4월 선발전에서도 차동민을 물리치고 마침내 5년 만에 국가대표 1진으로 발탁됐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약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허준녕은 마지막까지 화끈한 경기를 펼쳐 대망의 결승전에서 중국의 정이를 11-4로 완파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태권도의 '별 종별'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야구대표 금메달 1승만 남았다

양현종·윤석민 합작 중 7대 1꺾어...오늘밤 결승전

'도하 설욕'에 나선 한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에 1승만을 남겨두었다.

조범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이 18일 광주 아오티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에서 '복병' 중국을 7-1로 잠재우고 은메달을 확보했다.

선발로 나선 KIA 양현종은 6이닝을 3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클리브랜드)는 2-1로 앞선 3회말 솔로포를 쏘아 올리며 대회 3호 홈런을 장식했다.

선발 양현종이 경기 시작과 함께 첫 타자 추이샤오에게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허용하며 무사 2루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다음 타자 휘핑크림을 삼진으로 잡은 양현종

은 3번 장호보를 3루 땅볼로 처리한 뒤 4번 왕웨이를 다시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1회말 1사 1·2루의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던 한국이 2회말 연속 안타로 선취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1사에서 김현수의 내야안타에 이어 강정호의 2루타가 나오며 1사 2·3루, 박경완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2-0이 됐다.

3회초 양현종이 2루타 2개로 1실점을 했지만 이어진 3회말 공격에서 대표팀의 해결사 추신수가 대회 3번째 홈런을 쏘아 올리며 중국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대만과 첫 경기에서 투런포 두 방을 터트리는 등 예선 3경기에서 타율 0.555(9타수 5안타) 8타점의 맹타를 선보였던 추신수는 2

사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낮게 들어온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솔로 홈런을 기록했다. 우익수로 출전한 추신수는 깔끔한 수비와 함께 도루까지 추가하며 공·수·주에서 메이저리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국은 5회말 손시헌·정근우·김태균의 2루타 3개를 묶어 3점을 뽑아낸 뒤 7회 이대호의 좌전안타로 1점을 더해 7-1을 만들며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엔트리 투락 소동의 주인공 윤석민(KIA)도 대회 첫 출격에 나섰다. 7회 후배 양현종으로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윤석민은 안타를 하나 내주기는 했지만 150km에 이르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국기별 메달 순위 (18일 19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06	42	40
2	한국	34	25	37
3	일본	18	43	37
4	북한	5	7	11
5	이란	5	4	11

7회말 추가점을 뽑으며 승기를 잡은 한국은 송은범(SK)과 안지민(삼성), 정대현(SK) 등 철벽 불펜조를 가동하며 결승전에 대비해 마운드 점수에 나섰다.

2006년 도하대회에서 대만과 일본에 일격을 당하며 동메달에 그쳤던 한국은 19일 오후 7시 '괴물' 류현진(한화)을 전면에 내세우고 일본-대만전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최후의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금·금... 사격 또 골든데이

김종현 2관왕·한진섭 3관왕

한국 사격대표팀이 18일 3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며 다시 한 번 골든데이를 맞았다.

전날까지 10개의 금메달을 쓸어들었던 사격은 18일 남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과 개인전 그리고 남자 25m 센터파이어 권총에서 3개의 금메달을 더했다.

광주출신의 사격 대표팀 막내 김종현(25·창원시청)과 한진섭(29·충남체육회)·이현태(33·KT)가 조를 이룬 소총 대표팀은 광주 아오티 사격관에서 열린 남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에서 3498점을 합작하며 3478점에 그친 카자흐스탄을 따돌리고 사격에서 11번째 금메달을 명종시켰다.

이어 열린 개인전에서는 한진섭과 김종현이 1269.0과 1264.5점으로 나란히 금·은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한진섭은 지난 15일 50m 복사 단체전과 3자세 단체전 우승에 이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대표팀의 만능 박병택(44·울산시청)도 남자 25m 센터파이어 권총에서 586점을 쏘아 1점차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왼쪽부터 김종현과 한진섭.

이로써 금메달 6개를 목표로 광저우에 입성했던 사격은 기대했던 메달의 두 배가 넘는 13개의 금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선수단의 효자 종목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격은 이날 3개의 금메달을 더하며 한국의 아시안게임 단일 종목 최다 금메달 기록까지 작성했다. 앞선 기록은 지난 1986년 서울 대회서 복사, 2002년 부산 대회에서 태권도가 작성한 12개.

사격은 이번 대회에서 3관왕 한진섭과 이대명(22·한체대)과 2관왕의 김종현과 김학민(34·상무)·홍성현(27·서산시청)·김윤미(28·서산시청) 등 6명의 다관왕을 탄생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주영 골사냥... 우즈베크와 8강 대결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흥명보호가 16년 전 4강 탈락의 아픔을 안겨준 우즈베크스탄을 상대로 준결승 진출을 타진한다.

우즈베크스탄을 꺾으면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패했던 북한과 결승 티켓을 놓고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 태극전사들의 승리

의지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오후 8시 광주 아오티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크스탄과 8강전을 펼친다.

한국은 중국과 16강전과 마찬가지로 최강의 전력을 투입해 반드시 결승 진출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빠른 선제골'이 승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와일드카드로 합류해 2골이나 터트린 스트라이커 박주영(AS모나코)이 옐로카드 1개를 가지고 있어 자칫 이번 8강전에서 경고를 추가한다면 준결승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철저한 '경고 관리'도 필요하다.

8강전 상대인 우즈베크스탄은 조별리그에서 1승2패(3골4실점)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그나마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1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30년** 김영편입학원 227-8088